

국내 석유수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석유수요는 전년보다 16%정도 증가한 2억 4천4백41만배럴로 총에너지수요증가율인 1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석유수급동향과 전망

이에 따라 지난 87년에 44% 수준까지 계속 감소해 오던 석유의존도는 88년에 46.4%로 다시 증가세로 反轉했다. 이는 정부의 수요전망을 상회하는 놀라운 증가 속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말 일부지역에서 나타났던 등유의 품귀현상은 석유수요급증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동력자원부는 지난 해 12월 20일 등유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5개 정유회사에 대해 오는 1월말까지 하루 출고량을 5만8천배럴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긴급조정명령을 내렸다.

등유수급상의 문제는 정유회사의 정상적인 공급물량과 충분한 재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중 추위가 계속되면서 등유수요가 급증한데다가 지난 해 새차래의 기름값 인하로 그동안 연탄을 쓰고 있던 가정들이 값싼 기름으로 바꾸고 있고, 또 대부분의 가정용 보일러가 輕油用임에도 불구하고 열량및 가격면에서 경유보다 비싼 등유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등유소비가 예상외로 크게 늘어난데 기인된 것이다.

국내등유수요는 지난해 11월중 전년에 비해 무려 77%나 급증했으며, 12월에는 33%가 늘어났다. 특히 京仁 지역에서는 11월에 98%, 12월에 48%나 소비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유회사들은 수요증가에 대처하여 공장을 풀가동하고 부족되는 물량을 긴급수입하고 있으며, 석유협회는 소비자들에게 등유수급안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하는 안내광고를 都下 각신문에 일제히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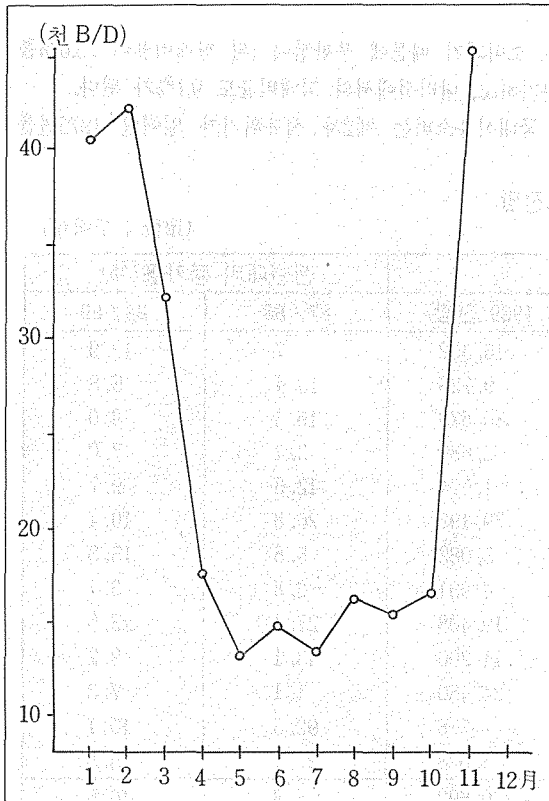
金 乾 治

〈本誌 편집인〉

「최근 예상외의 수요급증으로 일부지역에서 등유의 適期공급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소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수요가 진정되면서 수급안정을 되찾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등유수요는 11월중 전년에 비해 무려 77%나 급증했으며, 12월에는 33%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京仁지역에서는 11월에 98%, 12월에 48%나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회사들은 소비자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공장을 풀가동하고 부족되는 물량을 긴급수입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등유수급안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도 불필요한 등유소비를 억제하여 수급안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할 정유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억제해 달라고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으

등유수요 추이(1988)



〈資料〉 대한석유협회

니 아이로니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은 80년대초 석유수요 감퇴로 정유회사의 가동율이 50~60% 수준을 맴돌던 상황과 비교할 때 속昔之感을 느끼게 한다. 이제 세상은 변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가정연료의 전환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연탄값은 오른 반면, 기름값은 계속 떨어져 연탄을 쓰던 가정들이 쓰기에 편리하고 값싼 기름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름값은 지난해에만도 세차체에 걸쳐 모두 19.7%(소비자가격 기준)나 내림으로써 이제 연탄은 경제적인 우위성을 거의 상실해 버린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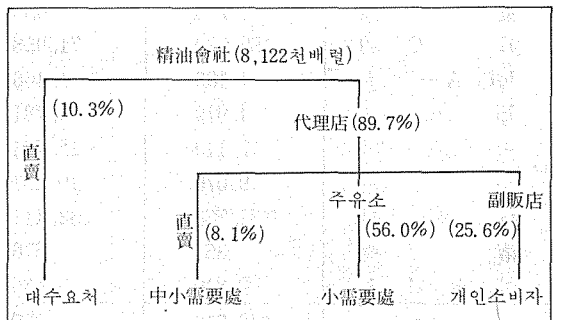
최근 관계당국이 분석한 연료별 경제성을 보면, 열효율을 감안할 경우 연탄값을 1로 했을 때, 경유 1.13, 가스 1.29, 심야전력 1.43으로 나타났다.

연탄수요는 경쟁연료인 석유및 가스가격의 잇따른 인하와 소비자들의 고급에너지 선호경향등으로 지난 8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88년에 2.7%, 89년에 4.3%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등유는 가정난방용 연료로 주로 겨울철에 소비가 집중되고 있다. 등유수요는 지난해 1/4분기에 27.3%가 증가하고,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3.7%, 2.1%가 감소하여 난방용 수요는 증가고 있지만, 취사용 수요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말의 등유수급상의 문제는 유통구조상의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京仁도로의 교통체증 심화와 유조차 부족, 그리고 일부 주유소의 저장시설 용량의 부족과 부관점의 미미한 저장기능도 수급상의 장애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燈油 유통경로(1987)



〈資料〉 韓國石油開發公社, “石油類需給統計”, 1987.

에너지源別 수요전망

	단 위	1987	1988	1989	증 가 율 (%)		
		실 적 (%)	추 정 (%)	전 망 (%)	1987	1988	1989
石 油	천배럴	210,511 (44.0)	244,096 (46.4)	269,592 (47.3)	4.9	16.0	10.4
에 너 지 油	"	154,268 (34.1)	181,909 (36.4)	200,122 (37.1)	2.9	17.8	10.0
L P G	"	21,216 (3.2)	25,969 (3.6)	30,614 (3.9)	20.6	22.4	17.9
非에너지油	"	34,927 (6.7)	36,218 (6.4)	38,856 (6.3)	5.8	3.7	7.3
석 탄	천 톤	42,545 (34.4)	45,532 (33.7)	47,555 (33.1)	0.8	7.0	4.4
무 연 탄	"	26,327 (18.5)	25,616 (16.0)	24,504 (14.1)	2.2	-2.7	-4.3
유 연 탄	"	16,218 (15.9)	19,916 (17.7)	23,051 (19.0)	6.1	22.8	15.7
L N G	"	1,621 (2.0)	1,987 (3.5)	1,904 (3.1)	-	22.6	-4.2
수 력	GWH	5,344 (2.0)	3,610 (1.2)	3,191 (1.0)	33.0	-32.4	-11.6
원 자 력	"	39,314 (14.6)	40,192 (13.6)	45,359 (14.2)	38.9	2.2	12.9
신 탄·기 타	천TOE	1,319 (2.0)	1,179 (1.6)	1,054 (1.3)	-10.9	-10.6	-10.6
1 차에너지 計	천 TOE	67,423 (100.0)	74,163 (100.0)	80,130 (100.0)	10.4	10.0	8.0
(판 매 전 력)	GWH	64,169	73,794	80,659	14.0	15.0	9.3
(도 시 가 스)	백만m ³	181	271	459	50.6	49.9	69.3

〈資料〉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유의 유통경로는 휘발유처럼 89.7%가 도매단계인 대리점을 경유하지만, 소매단계에서는 상이한 판매경로를 보이고 있다. 즉 등유는 대부분 가정·상업용 연료

로 소비되기 때문에 부판매에서의 판매비율이 25.6%를 차지하고, 대리점에서의 직매비율도 9.1%가 된다.

국내석유소비는 제2차 석유위기가 일어난 1979년을

石油製品別 수요전망

(單位：千배럴)

	수 요 량			전년대비 증가율 (%)	
	1987(실적)	1988(추계)	1989(전망)	87 / 88	88 / 89
揮 發 油	10,354	13,641	16,352	31.7	19.9
燈 油	8,156	9,246	9,786	13.4	5.8
輕 油	63,536	73,978	80,570	16.4	8.9
輕 質 重 油	2,381	2,462	2,635	3.4	7.0
重 油	1,278	1,435	1,574	12.3	9.7
B - C 油	59,579	71,958	79,192	20.8	10.1
Jet A - 1	4,166	4,406	5,082	5.8	15.3
Jp - 4	4,919	4,781	4,931	-2.8	3.1
프 로 판	12,140	15,464	19,408	27.4	25.5
부 탄	9,076	10,267	11,206	13.1	9.2
나 프 타	31,766	32,111	34,450	1.1	7.3
溶 劑	351	676	778	92.5	15.1
아 스 팔 트	2,810	3,430	3,628	22.1	5.8
計	210,510	243,855	269,592	15.8	10.6

〈資料〉 에너지경제연구원

피크로 그후 82년까지 감소하다가 8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소비의 주요증가요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수물동량및 차량대수의 증가, 석유화학공업의 호황과 LPG를 비롯한 가정·산업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등에 기인되고 있다.

석유제품별 소비추이는 수송부문에 주로 쓰이는 휘발유, 경유등 경질유제품소비와 석유화학공업용 나프타 소비가 크게 증가해온 반면, 석유의존도감축정책으로發電및 산업부문의 연료인 B-C油 중심의 重質油제품의 소비는 급격히 감소되어 소비구조가 輕質化되면서 中質제품의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輕質油비중은 83년의 51.5%에서 87년에는 68.6%로 크게 늘어났다.

국내석유수요는 오는 91년까지 연평균 10.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이 기간중 총에너지수요증가율 6.9%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요는 88년에 전년대비 16% 증가한 2억4천4백 10만배럴(추계)에 달했으며, 89년에는 10.4% 증가한 2억7천만배럴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87년에 44%까지 떨어졌던 석유의존도는 88년에 46.4%, 89년에 47.3%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최종에너지源別 비중에 있어서 석유는 87년의 51.8%에서 88년에 53.5%, 89년에 54.2%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정·산업부문에 있어서도 석유의 비중은 87년의 23.0%에서 88년에 26.6%, 89년에 29.8%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 해외단신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매장량, 자체평가에서 51% 늘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회사인 Aramco는 自國의 석유매장량이 작년의 1,674억 배럴에 비해 51% 늘어난 2,523.4억 배럴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현재 알려진 세계석유매장량의 1/4을 상회하는 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매장량규모는 세계석유산업의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OPEC내의 주요한 산유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최대의 석유수출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나라는 확인된 석유자원을 산정(算定)하는데 있어서 극도로 보수적이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발표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보고있는데, 이 발표를 지켜본 미국의 소식통들은 미국이 상향된 석유매장량을 다시 평가하도록 Aramco

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OPEC内の 주요국가들은 작년의 확인석유매장량과 OPEC내에서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평가를 높게 산정했다.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의 신장되는 석유잠재력에 대한 中東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의 석유관계자들은 自國이 적어도 1,500억 배럴규모의 원유를 더 발견했다고 말해 왔다.

여기에 대해서 Aramco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매장량 算定은 6년간의 최고수준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1982년 Dhahan에 개설된 탐사 및 석유공학 컴퓨터 시스템이 이용되었다고 말했다.